
2024년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개요

- 일 시 : 2024. 2. 22.(목) 14:0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0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5개소 7작품(조각 7 / 신규 2, 재심의 5)

□ 심의결과

- 7작품 중 가결 3작품 (원안 2, 조건부 1), 부결 4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연수구 옥련동 271-17일대	조각	행복		○		
2	2	운서동 3085-4	조각	휴식			○	
3	3	서구 연희동 166-10	조각	Growing love			○	
	4		조각	행복의 발아		○		
4	5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조각	Dreaming Birds		○		조건부
5	6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외 80필지	조각	Dreaming space			○	
	7		조각	나빌레라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부위원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 인원은 총 10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5개소 7작품이며, 모두 조각작품입니다. 그리고 신규 작품은 2점, 재심의 작품은 5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전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

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 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 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입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총 7 작

품을 심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행복>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 그래도 색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가족, 가족 이런 느낌하고 좀 밝잖아요, 현대적인 느낌이 있고.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표현력이 조금 약간 과장된 것들이 약간 자세히 조금 이랬으면 동양적인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설치됐다는 게 항상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심의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없어지고 그게 어떤 항상 지적은 되지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또 일반 주민들이 또 보기에는 재밌어 하니까 인기가 있어서 많이 선택은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항상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작품이 좀 밝아서 사실은 판매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무난한 걸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 저도 뭐 전반적으로 작품은 아까보다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리즈도 제가 이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뭐 조형상의 어떤 규제가 지금 몇 번 내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떠나서 이제 주변 환경 조화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이상 더 하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마치시면 책상 우측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중)

○○○

저기 이 작품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품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 보통 미술하시는 분들께서 작품의 지적 그러니까 아래쪽에 접합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세 지점이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가님 작품들이 지점들이 확인하다 보면 세 점이긴 한데 다 일자예요. 일자로 쪽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점은 3개인데 이게 삼각형 형태로 구조로 되어 있다가 조금 안전에서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다 보면 직선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좀 규모가 크다거나 뭐 해서 아니면 지점 부분에 좀 설치되는 스틸 규격이 좀 크다 그러면 괜찮은데 상부랑 동일하게 해서 한 3cm, 3cm에서 4~5cm 정도 되는 크기로 지점 3개를 잡아놓고 이 작품을 설치를 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규모가 크면 아이들도 이게 크니까 ‘아, 작품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2m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이라면 측면으로 밀거나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혹시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 후에 지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한번 정도 언급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해 드렸으면 했습니다.

위원장

예, 이 작업이 가결이 되면 앵커 부분하고, 기초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를 걸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을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각이나 승인 결정이 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네.

2. 운서동 3085-4

2) <휴식>

위원장 다음으로 2번, 작품 <휴식>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휴식>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아, 그럼요. 네.

○○○ 밑에 캐릭터가 앉아 있는 책과 그 소녀 캐릭터가 너무 이질감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가 너무 가볍고 사실 캐릭터에서 고민을 안한 것 같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책 표지만 이렇게 만들었지, 그 안에 사실 금이라도 몇 개 좀 가고 책 두께라든지 이런 뭐야, 저 컴포지션 하는, 컴포지션인데 이제 조형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한 작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캐릭터가, 그리고 너무 캐릭터가 유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작품이 물론 단가가 지금 8,000만 원이니깐 8,000만 원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각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좀 작품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거 할 때 이렇게는 안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보다 좀 더 성의가 있거나 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갖다가 지금 그 캐릭터도 뭐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전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깔고 앉아 있는 책도 지금 너무 단순하지 않나. 좀 가볍... 그러니까 얇고, 두껍고 그러면서 또 책이라는 느낌의 그 표지만 갖고 하드 카버 느낌이 있어 한

번쯤 더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 저는 이 작품에서 어쨌든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성인데요. 그 밑판에 되게 넓어서 앉아 있는 건 좋은데 어린이들이 올라가고도 남을 형태라서 이걸 100% 정말 확실하게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도 사실 호기심을 가지고 올라가고 싶어서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올라갔을 경우 이게 지금 전체 높이를 보면 이제 앉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2,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예, ○○○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작품, 작가분 작품을 보니까 캐릭터가 이전에 유사한 캐릭터로 한두 점 공공 미술 작품을 한 게 있긴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나를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좋은지, 예술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게 보니까 다른 분들, 이제 과거에 작품을 어떻게 했는지가 옛날에서 본인이 그냥 작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없어가지고.

○○○ 그렇죠.

○○○ 이걸 궁금하긴 해요. 이분은 조형 경험이 별로 없는 분 같기는 한데 그래서 순수 작품은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돌이 주는 어떤 그런 묵직한 느낌하고, 인물의 그 가벼운 캐릭터 같은 것이 약간 더 언밸런스한 이런 건 느껴지는데 보통 자기 작품 세계가 이런

스타일로 뭔가 계속 유지해왔다면 어떤 그런 이걸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한데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저도 좀.

위원장 여기 심의자료에 이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나요?

서 기 이 화면에 보이는 심의서류 안에 작가 경력서가 있거든요.

위원장 네.

서 기 이 작가가 5점 이미지를 보내왔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 제 생각에는 경력서를 안 봐도, 글썬요. 이게 8,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가격을 떠나가지고 좀 고민을 좀 안 한 작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8,000만 원이라서… 돈, 액수로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 그럼 이 작품하고 아까 먼저 그 <행복>이라는 작업하고는 어떤 변별성이 있는 걸까요? 이것도 캐릭터고, 먼젓번 <행복>이라는 작업도 캐릭터인데.

○○○ 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캐릭터라는 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친근감이 오고, 궁금증이 오는 게 캐릭터로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캐릭터를 보면 아톰도 아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캐릭터를 따라하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고 창의성보다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책에, 책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너무 단순하게 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니, 기왕이면 창작하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약간만 좀 고민을 해줬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았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거 조각가가 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끼워 맞추기. 글썬, 요즘 계속 하트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데 쓸데없이 하트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원장 무슨 느낌이에요?

○○○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형물에 대한 이 조형 요소에 저 하트가 그렇게 꼭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리석 그러니까 저 돌로 이제 책을 만들었으면 그 캐릭터도 좀 같은 재질로 단순하게 좀 뭘 책을 읽는 듯 한 느낌을 잡아줄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8,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8,000만 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 ○○ 심의를 제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공동주택을 할 때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매스나 색깔 선정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결정을 겨우겨우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품 보면 공동주택의 가운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되게 이 공동주택의 얼굴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공동주택의 값어치를 더 올려주는 화룡점정이 되는 미술 작품인가에 대해서, 될까라는 거에서 의문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들에 지금 새겨져 있는 이 글씨들이 뭔가 의미를 가졌다면 그래도 ‘아,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구나. 뭔가 표현하고 싶고, 주민들에게 주고 싶고, 뭔가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단어들이구나. 혹은 그런 거 정보구나.’ 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해놓은 것 같아서 그런 점도 많이 아쉽고, 색채에 대해서도 색채는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저 공동주택의 외벽 색깔이나, 이런 주변의 색깔과 과연 어울리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넘어가시죠.

(채점 중)

3. 서구 연희동 166-10

3) <Growing love>

위원장 3번 작품부터 7번까지 작품은 재심의 작품들입니다. 다음으로 3번 <Growing love>에 대해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3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게 사랑의 형상을 표현한 것 같지가 않는데요.

위원장 예?

○○○ 아, 사랑의 형상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 영화의 그 인트로에서 들어오는 그냥 이게 인트로가 쪽 올라오듯이, 인트로에서 글자가 쪽 올라오듯이 하는 느낌 그러니까 러브라는 글자 자체도 좀 조형성이 좀 맞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부반응이 참 많이 드는 작품 같아요.

위원장 예.

○○○ 예, 형상이, 형상도 그렇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좀 너무 두툽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게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가면 좀 훨씬 더 낫지 않나. 약간 답답한 느낌?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해서 좀 어떤 부분을 조금 좀 날렵하게 하고 이렇게 좀 가면 훨씬 더 조형적으로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게 더 탄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이제 그 3번 그 작가 경력서하고 제가 좀 봤는데 어, 그 작품이 기

존에 있는 작가 작품을 카피한 것 같은 그런 건지 형식적으로 봤을 때 동일 작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동일 작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품을 보니까 작가 경력서 작품들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 이게 선생께서 생각하는 그 작가가 맞는 것 같은데?

○○○ 예, 동일 작가입니까? 근데 어쨌든 일단 조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아무리 이게 그 샌딩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서리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 과연 좀 좌대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좀 크기를 좀 줄이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바닥서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작가분도 이 그런 이제 연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서류의 심의도서에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앞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분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실수가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어떻게 좀 밸런스를 좀 조정한다든가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저는 약간 러브하고 저 구멍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약간 러브하고 달라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람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사람이 아웃라인을 저기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심의도서에서 보면 아웃라인이 그냥 잘라낸 것 같은 그러니까 마무리를 일부러 이제 작가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거기가 되게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눈사람같이 생긴 사람의 끝자락이 왜 그냥 이렇게 잘라내서 그 끝에가 그냥 처리를 그냥 놔

됐어요. 일부러 그러시긴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불안해 보인다고 그럴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도 그 원형이 이렇게 잘려나간 그 라인이 이렇게 조금 저의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어떤 사람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 저 캐릭터가 사실은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좀 꾸민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자꾸 걸리거든요.

○○○ 하얀색.

○○○ 네. 하얀색 로봇 풍선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위원장 네.

○○○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만화 캐릭터하고 너무 형태가 유사해서 사실은 좀 이것도 결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3D를 좀 하는데 저 글자 크기도 그로잉 했다고 이렇게 제목에서 그렇게 썼지만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확장된 형태가 좀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좀 약간 언밸런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실 뭐 작가분에 대해서는, 그 작가분이 맞으시다면 계속 그런 작업을 하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어쨌든 이 작품에서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러브라는 글씨가 4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이거가 이제 휴먼 스케일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멀리 가야지 이 글씨가 보일까? 어린이들은 이게 보일까? 어른이라도 이게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방향을 또 어디로 틀어서 그러면 몇 층에 있는 분들만 러브라는 글씨가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 관리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딱 위에 써놓으신 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연 1회 내외로 부드러운 면으로 가볍게 닦아주거나.’ 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과연 가능할까, 유지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손가락 끼임도 물론 걱정이지만 쓰레기를 분명히 여기다 다 말아서 넣을 거거든요, 애들 과자 먹은 거 넣고, 휴지 넣고 할 거라서 그거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마감 처리가 좀 위험해 보이고요, 마감 처리상. 이거 폼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구조적으로 나중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해 보여요.

○○○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높이면 차라리 좌대를 해서 좀 안전하게 좀 위로 작품을 좀 붙여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위원장 예, 저희가 작품을 볼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기 전에 이미 직관으로 이미 먼저 판단을 내리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채점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점 중)

2. 서구 연희동 166-10

4) <행복의 발아>

위원장 다음 작품. 4번 <행복의 발아>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예, 4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 작품 겉과 속이 있잖아요. 겉은 하얀색인데 그 속이 그 광 처리한

건가요? 그 아니면 그냥 잠깐...

○○○ 보기에 는 저기 미리 같은데요.

○○○ 아, 그런 가요?

○○○ 미리 마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 54페이지 보면 미리 마감으로 쓰여 있습니다.

○○○ 아

○○○ 그전에 작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강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모던한 느낌도 있고. 그 전 작품은 너무 빈약하고 좀 약간 허술했는데.

○○○ 작가도 바꿨대요.

○○○ 예.

○○○ 이게 이미지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 이미지라

○○○ 그러니까 너무 많은

○○○ 좀 걱정이 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좀 자료를 리서치하는 사람 같으면 너무 흔한 이미지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가 **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 완전 똑같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 근데 형식 자체가

○○○ 진짜 거기, 거기 있어요.

○○○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저 작품은 좋게 봤는데 다른 걸 모방했다니까 그것만 있으면 확실한 것 같아요.

○○○ 아, 저도 작품은 좋았고, 작품은 좋은데...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찾아가 지고 드리면 그러면

○○○ 그러면 안 돼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아니, 그건 확실해야 돼요. 너무

요즘에 작가들이 너무 남의 작품을 따라하고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를 모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조형물도 모방한 게 너무 많이 당연히 다 되거든요, 설치가. 그래서 그게 확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지지난번에 제가 확실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도 그냥 통과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자료를 제가 다 들고 올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위원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실 권리는 없고요.

○○○ 아, 그래요? 아니, 심의위원들한테 권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 말이 나왔으니 이게 작가들이 서로 상호 모방 내지 상호 표절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 건축 미술 작품들이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작업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소수 작가들에 의한 독과점 문제하고 이 상호 표절 문제가 우리나라의 조형물 시장의 큰 부정적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성적인 작품은 보기가 힘들어지죠, 다 서로 베끼니까. 이거는 예술가의 그 기본적인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소수 작가에 의한 독과점 문제도 이 시장윤리에 위배되는 거죠. 이 저 조형, 건축 미술품 이 1%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예술가들의 생활을 돕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 우리 생활환경을 미화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이제 자꾸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경제, 경제주의자들의 논리를 보면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서 자율 경쟁하게 하는 것이 결국 좋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애초에 이 법을 만든 최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평등하게 좀 생활에 도움이 돼 보자. 예술가들을 좀 구제하

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애초에는.

○○○ 얼마 전에 심의 했던 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작업하신 분, 지금 이력을 보면 전혀 다른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이 아니고. 그렇죠? 예.

○○○ 작품 자체는 좋아요.

○○○ 그러니까 예, 작품 자체는

○○○ 되게 신선하고 현대적이잖아요. 근데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찾으면 좋은데. 그래서

○○○ 물론 저 솔로몬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 포스트 모던아트에 와서 뭐 오마주라든가 또는 뭐 많잖아요. 작가의 완전한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어딘가에서 본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걸 베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뭐 저기 전유라고 해 갖고 남의 작품을 통째로 그냥 갖고 오는 작업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념이 실려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참, 이것이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심의위원 선생님들께서는 그만한 이제 연륜과 경험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 주관에 따라서 이제 채점하시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제가 지난번 심의한 작품 같은데 부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나왔거든요. 이게 ○○○ 선생님 얘기도 이제 검사한 게 있지 않았냐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는 확증이 없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전 작품이랑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 너무 똑같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변경하든지 권고사항이든지, 예.

○○○ 그러니까 저도 심의를 이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이

력이, 이력 작품이 이게 전혀 다르니까.

○○○ 아, 저 지난번 회기, 저 왼쪽에 조그마한 이미지가 지난번 회기 때 기록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군요.

○○○ 아니, 작가가 변경됐어요.

○○○ 아, 작가를 바꿨어요? 아

○○○ 네, 지금 바뀌어서. 근데 바뀐 작가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좀 다른 작업이죠.

○○○ 아니, 그거 찾지 못하면 어쨌거나 현대적으로 느낌은 좋아요. 찾으려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결되면 하나씩

○○○ 네, 작품만 보고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제가 보기에든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런 유사한 작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 그러면 조건부로 하면 되죠.

(채점 중)

4.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5) <Dreaming Birds>

위원장 네, 다음 5번. <Dreaming Birds>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작가가 바뀌었네요.

사회자 작가와 작품이 다 바뀌었습니다.

- 네.
- 위원장 의견들 없으신가요?
-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그 창의성이라든지, 컴포지션이 그 그냥 성의 없이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새를 만들어도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변경 전에 작품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이.
- 물방울이 올라가는 이런 형상성은 좀 구조적으로 안전만하다면 좀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조금 더 다채롭게 가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가 딱 나왔는데 뭔가 약간 부조화스럽다라는 느낌도 들고.
- 그리고 새도 색깔이 다 노랑고.
- 저게 구조적으로 저기 도면을 보면 안전한 건가요? 안에 뭐, 그 심재 들어가고 앵커하고 그런 게.
- 네,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걸로 보입니다.
- 네.
- 이게 저 이 작가는 항상 저 노란색을 주제로 해서 작품 한 거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작가는 자기 작품을 그냥 조형물로 만든 것 같아서 그런 믿음은 저는, 예. 색감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편한 원색적이지는 않아서 따뜻하게, 부드러운 색감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저는 그게 색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컴포지션에서 지금 문제가 물방울도 그렇고, 새 크기도 그렇고.
- 물방울이 좀 길고 새가 좀 작아도
- 예, 그러니까. 예.
- 색깔을 조금 다채롭게 하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데

- 맞아요.
- 만약에 뭐 저게 통과가 된다면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색상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게.
- 저는 이 작품 설치 위치를 보면 여기 바닥 분수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삼각형을 그린 그 자리에 있는 거라서 바닥 분수량 어린이 이렇게 했을 때 물방울 모양도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색채에 있어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분명히 엄청 컬러풀할 거라서 그 색깔과 애가 만났을 때 어떻게 과연 어울릴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돼서 색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걸로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색채의 디자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좀 주변을 둘러보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색깔을 좀 조절을 할 건지를 판단해서 좀.
- 바로 저 옆에 놀이터가 있나요?
-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놀이터가 있고, 바닥 분수가 있더라고요.
-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태라든지 이게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저는 작품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컬러야 뭐, 좀 “좀 바꿉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새 세 마리가 형태도 좀 그렇고, 저기 크기도 그렇고, 물방울도 그렇고, 좀 약간 다양한, 다양한. 조금만 고민을 하면 좀 많이 바뀔 수는 있을,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 채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점 중)

5.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외 80필지

6) <Dreaming space>

위원장 다음 6번, <Dreaming space>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6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무런 의견이 없으신가요?

○○○ 이 작품 제가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네.

○○○ 예, 제가 저기 작업실에 그 작가가 누군지를 몰라서 동일 작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음, 그건 모르겠고.

○○○ 아니에요.

○○○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작품, 개인 작품하고, 그 공공미술 작품하고 보니까 좀 공공미술 작품 ○○ 신청사 아, 조형물을...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 작품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시안하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것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그 이렇게 어디 공모전에 내고, 그 공모전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또 그 작품이 또 다른 데서 카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너무 유사, 이 작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작품하고, 그다음 작품.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올라온 작품을 보고 형태하고, 그 유사성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저희가 그 청사 준비하

다가, 21년도에 청사를 같이 팀으로 준비를 했던 작품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하고 서로 작가들이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나오는 그 형태랑 너무 유사해서 지금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할까 했는데 혹시나 근데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지금 와서,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심의서를 보고 동일 작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했는데 개인 작품 경력을 보니까 작품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어, 근데 이분이 23년도 공모 당선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은 그 시안만 가지고 본다면 저희 쪽 그 했던 부분하고 되게 유사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근데 그거는 현실화가 안 된 거고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현실화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금 심의 과정에서 이 표절 문제 때문에 미술작품 심사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금 위원회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고 규정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판단하셔 가지고 이제 또 선생님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마 그 작가가 보면, 그 제안서를 했던 작가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관계된 사람들이 한 6~7분 계시기 때문에 조각가들이. 예,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 그러면 아이디어 도용이 되는 거예요?

○○○ 어, 그렇게 되겠죠. 네. 3D 한 것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유치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저 작품의 그거는 아이디어가 다른 데 이미 기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
요?
- 제안을 했던 거죠.
- 위원장 제안만 했던 건데
- 네, 네. 근데 설치가 그 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에 있는 모 작가 선생님 작품으로 제안이 돼 있
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안 낸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이디어만 주고, 도용당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 후배들이 되게 많이 있습
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 그냥 저 작품, 저는 그냥 봤을 때 도용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요. 어쨌
든 조형적인 거로도 저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까 그냥 좀 가벼워 보이고 흰색의 테두리에 그냥 줄무늬 들어간 것도
그렇게 서로 매치되는 게 없어서
-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
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날렵하고 더 이렇게
매스감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작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아무
래도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렇
습니다. 근데 같은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채점 중)

5.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외 80필지

7) <나빌레라>

- 위원장 마지막 작품입니다. 7번 <나빌레라>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사회자 7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 작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건축물과의 조화나 뭐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 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냥 순수미술한 사람들보다 더 폭넓게 보는 안목이 있으시죠. ○○○ 선생님 의견 어떠신지요?
-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보기에는 예쁘지만 우려가 되는 게 역시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술관이나 어디 전시관에 ‘만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있다면 너무나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작품이라서 저도 너무 예쁘게 볼 것 같은데, 애는 지금 잔디밭에 있으면 이것 역시 올라가게 오히려 만들어놓은 형태인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손가락이 끼이거나 뭐 이렇게 구멍이 크지 않으면 발은 끼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끼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많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 음, 글썄요. 이 작품이 승인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결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조건을 걸어서, 뭐 좀 더 어떤 부분을 개선하게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네, 선생님.
- 저도 사실 그 경기도에서도 심의도 해보고, 인천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작품들 보다보면 미술 작품이니까는 서로 이게 일반인이 손을 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들은 일반인이 공존하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작품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작품으로서 그냥 관람 형태로 봐야 되는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좀 구별

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심의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기는 한데 누가 봐도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서 앉아서 놀 수밖에 없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확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작품처럼, 형태로 보이는데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타공이,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는 속 끼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한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그냥 단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심의를 받고 부결이 났던 경험이라도 있다면, 구조적으로 하부 쪽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보시면 이 자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상세히 시공도를 보더라도요. 하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림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 느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쓸래. 아이, 그냥 설치해 볼래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다가와 버리는 거여서. 어, 사실 저도 이 작품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똑같은 말을 해드렸던 거 같아요. 근데 그 보장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작품 중에 저 작품 봤을 때 제일 독창적이고, 세련되고, 되게 이런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나 이런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정적인 것 때문이면 무슨 좌대를 설치해서 위에 놓는다든지 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타는 건 뭐 어떤 건물이든, 뭐 누가 올라가더라도 어디든 못 올라갈 데는 없어요, 작정을 하면. 빌딩도 올라가고, 맨손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근데 그게 조금 아깝네요. 작품은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굉장

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가볍게 표현한 면이나 그런 곡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좋게 보이네요.

○○○ 이게 파이프를 자른 건지 아니면 와이어, 둥근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한 건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이프를 자르면 좀 예리하잖아요. 약간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걸 이제 링으로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용접해서 했다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걸 막 누가 탄다, 그럼 보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뭐 다른 밑에 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아래쪽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 애들이 올라타기에 너무 좋은데요.

○○○ 저희가 사실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면 그걸 좀 보완을 하는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뭐 얘기할 거리도 없죠.

○○○ 타공 있나요? 타공?

○○○ 레이저 타공이라고. 예, 그러면 이게 하여튼 작은 것들을 자꾸 막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작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레이저 타공 했을 때 그리고 면이 이렇게 레이저가 가면 작은 것들은 딱 끝에서 멈춰요. 망치로 툭툭 때려서 빠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크기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다 따내는 형태인데 이 형태가 과연 이제 그 끝의 부분이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이게 돼야 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형태상의 어떤 그런

안전성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이렇게 보강을 해서. 왜냐하면 다 여기가 그렇잖아요. 시행사나 뭐 어쨌거나 대행사나 다 좋아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보강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건축 장식품이니까 안전도는 고려를 해야죠. 작품, 이게 작품으로만 간다면 별일이 없을 텐데 건축 장식품이니까

○○○ 양심상 이제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지면하고 이게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좀 접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용접을 한다는데 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래된 거는. 옛날처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좀 여기에 매달렸을 때 둥글어가지고 또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어 보이거든요. 디테일 보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초가 안 나와 있죠?

○○○ 매달렸을 때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아 가지고. 둥글어 가지고.

○○○ 지금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뭐 파이프로 뭘 쓴다,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앵커 뭘 쓴다, 이런 게. 두께는 어떻고. 그런 것들이 디테일이 저렇게 하고 마는 거죠. 봐도 안 나오는데.

○○○ 공구리치고 그 위에다가 저거

○○○ 그 재원을 밝혔나요, 지금?

○○○ 볼트. 콘크리트. 잡석,

○○○ 저 용접에서 일체화 한다는 말 같은데.

○○○ 콘크리트에서 볼트 박는 다는.

○○○ L형 앵커 200네요.

- 네, 접합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지 않고. 여기를 매달려서 막 흔들 때 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둥그니까 좀 움직이지 않으면
-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설치하지 않고
- 네, 알겠습니다.
- 그 용접을 해서 현장 가서, 현장에서 앵커만 박는 걸로 아마 그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
- 계속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제
- 예, 그러니까 일체, 일체형으로 올 용접으로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작가분이 그걸 명기를 안 해놔서니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보강을 해야죠, 다시.
- 이 작품 가결되면 조건을 하든가, 권고해서 좀 보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이 좀 다칠 수 있을 확률은 낮은 것 같아서.
- 여기는 조건부로. 권고보다는 조건으로 그냥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다치기 딱이에요. 매달릴 거고, 뒤에서 밀 거고. 저 구멍에 손가락, 손가락 빼서 또 나갈 테고.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이 안전성에. 작품 쪽에는
- 아무리 다듬어도 레이저 커팅하면 저게 그 우레탄을 칠해도, 우레탄을 칠하든, 뭘 하든 그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긴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 위원장 그럼 채점으로 넘어갈까요?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예,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가결은 안건번호 1번, 4번, 5번, 총 3건입니다. 부결은 안건번호 2번, 3번, 6번, 7번. 총 4건입니다. 여기 가결된 작품 중에서... 네, 5번. <Dreaming Birds>에 대해서 아까 심의위원 선생님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서 기 5번이요?

위원장 예,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 권고할 것인가 이것을 잠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셨냐면 색깔을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색채 계획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새가 지금 좀 기둥에 비해서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의 부피를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몇 개 더 첨가해서 시각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거론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또 첨부해서 다른 의견도 있으면 네, 말씀...

○○○ 저는 이제 구를, 저 크기가 에 맨 밑에는 좀 크게 좀 깔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지 옆에도 혹은 하나 좀 더 단다든지 해서 좀 다양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2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성 크기도 좀 변화, 다양성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새 형태가 사실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저 새 형태가 사이즈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물방울 하고 뭐 새 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새가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경 작품으로 이미지를 좀 한다면 물방울에 좀 변화가 좀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바닥에 물방울이 좀 크게 이렇게 있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새의 크기도 큰 거, 작은 거 좀 변화가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없이 그 사이즈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그런 시각적으로 지루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이 작업이 일단 조건부가 되느냐 또는 권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건부는 저희가 조건 단 결 의무적으로 수정해야 되고요. 권고는 작가가 재량으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작가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조건을 조건부로 달 것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먼저 거수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

네.

위원장

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걸어서 반드시 부족한 점이 보완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이네요. 네, 그러면 과반을 넘었으니까. 예, 또 이 건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한 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거는 걸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저렇게 새를 할 때 그 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똑같이 새개를 크기, 사이즈가 같으면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새 크기 한 마리 정도

○○○

그렇죠.

○○○

좀 작게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

아니면 꼬리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느낌

○○○ 예,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안에 그 물방울에 색 크기를 좀 줄이고, 물방울... 새 크기를 줄이되 약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고. 2대 1이랄지 아니면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가 그러면 알이 조금 더 물방울이 올라가서 조금 더 이제 크기의 규모나 아니면 아까 바닥에 좀 이렇게 좀 더 구성을 큰 것들을 예, 조금 풍성하게 하면 좀 다채롭지 않나.

○○○ 특히 새 바로 아래 있는 애들이 사이즈를 보면 한 300 정도밖에 지름이 안 돼 보이기는 해요. 너무 그 새랑 그거는 너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안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안전망이 있어도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고려해 달라고는 합니다.

○○○ 근데 높이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작은 거 새, 높이가.

서 기 사이즈 한 번 볼게요.

○○○ 예, 거기 좌측 거.

서 기 이거요?

○○○ 예.

서 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70, 예.

○○○ 그러니까 170이니까 저 꼬랑지까지가 한 8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저거 올라타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 좀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고. 올리제 안전성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 물방울을 키워야 돼요.

○○○ 높이를, 예.

서 기 높이를 높이 키우라고요?

○○○ 네, 높이를.

○○○ 개수를 좀 더 보강해서 높이를 높이고.

○○○ 올라탈 수 없게.

서 기 그러니까 구를 추가하여 왼쪽 새에 높이를 높일 것. 이렇게 할까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를 추가하여 왼쪽 새에 높이를 높일 것.

○○○ 재가 좀 작아지면 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 예, 안전.

서 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를 추가하여 왼쪽 새에 높이를 높일 것. 이렇게 할까요?

○○○ 아니, 그러니까 왼쪽 새 가지고, 왼쪽 조형물의 높이를

서 기 왼쪽 조형물에?

○○○ 예.

서 기 앞에 있는 새의 크기를 줄이고 구의 구성을 다양화.

○○○ 네.

○○○ 네. 아니, 하나 정도는 어떻게

○○○ 정확한, 맨 밑에.

○○○ 정확하게

○○○ 그 왼쪽, 말씀하신 그거 왼쪽에 구 하나를 좀 큰 구를 추가해서

○○○ 올리고.

○○○ 네, 높이고. 그리고 저는 바닥에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좀 하나를 키워서 놓으면 좀 안정감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바닥에 따로 놓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를 좀 크게 하면

○○○ 그렇죠.

○○○ 예, 좀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왼쪽 새만 조금 작아지면 되고. 구멍이 투각이 없으니까 개는 좀 작아져도 될 답답할 것 같아요.

○○○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지. 모양도 사실 재미없어요.

○○○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죠.

서 기 말씀하신 게 있는 이 사항이 맞는 거죠? 바닥에 두 개 구. 하나는 크기를 크게 조정. 맞을까요?

○○○ 네.

○○○ 바닥에

사회자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세 컷이 똑같네. 첫, 두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똑같아요. 예, 그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서 기 두 번째 거 지울까요?

○○○ 예. 두 번째 거, 예.

○○○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새 크기를 줄이고 그 새, 변화가 있어야 그러니까 크기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쓰고.

○○○ 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서 기 에 변화, 줄일 것.

○○○ 지금 새가 세 가지가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니까, 크기가 다양하면 좋겠다. 새 크기를, 크기를 줄이고 하면 줄이기만 할 것 같은데요.

○○○ 네, 그냥.

서 기 새의 크기를 줄이고 다양하게 하고

○○○ 그 첫 문장 ‘새의 크기를 줄이고.’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서 기 새의 크기를 다양화 이럴까요?

위원장 네, 네.

○○○ 그렇죠, 다양하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 근데 크기는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 저거 밑에

받침에 비해서 새가 좀 크니까 조금 줄이고 갓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그 맨 저기 마지막 문장 ‘바닥에 두 개 구 중 하나는 크기를 크게 조정.’ 이거는 맨 왼쪽에 있던 그 키 작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아, 바닥에, 바닥에.

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서 기

추가가, 그중에 하나는 더 크게 하라는

○○○

예. 더 크게 해서.

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논의는 이제 끝났죠?

○○○

저 맨 위에 새 크기를 줄이면서 크기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은

서 기

줄이면서 크기를 다양화? 이렇게 할까요?

○○○

아, 네. 이거 괜찮으세요?

서 기

이 문구도 괜찮으세요?

○○○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새가 너무 지금 밑에 예, 조형물에 비해서 크고.

서 기

새의 크기를 줄여서 다양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위원장

예, 더 추가할 사항 없죠?

○○○

네, 없습니다.

위원장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심의의결서 작성하고 서명을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의 심의 안건 중 1번과 4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번은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6번, 7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위원장

네.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24년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략)

- 녹 취 종 료 -

(이상 끝)